

돌담길

따라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인 돌을 차곡차곡 쌓아 만든 돌담은 투박하면서도 정겹다. 켜켜이 쌓인 돌 하나하나에는 옛사람들의 땀방울과 지혜가 녹아 있다. 봄 내음 가득한 돌담길을 느릿느릿 걸으며 세월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보자.

1 바람이 빛은 제주 돌담

땅을 파면 검은 돌덩어리가 끝없이 나왔다. 척박한 땅을 일구기 위해 돌을 깨내고 옆에 쌓으니 자연스레 담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담은 모진 바람과 짐승을 막아줬다. 이렇게 쌓고, 또 쌓기를 수천 년. 검은 용처럼 구불구불 이어진 돌담은 제주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 온 버팀목이 됐고, 제주를 상징하는 풍경이 됐다.

글 김희선 · 사진 전수영 기자

바람과 돌과 여자가 많아 삼다도로 불린 제주도. 거칠고 투박한 현무암 돌담은 섬 어딜 가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제주만의 풍경이다. 농부가 일하는 밭에서도, 가옥이 웅기종기 모인 마을에서도, 마소가 풀을 뜯는 목장에서도, 해녀가 물질하는 바닷가에서도 어김없이 돌담을 마주하게 된다. 제주의 모진 바람을 막기 위해 흔하디흔한 돌로 담을 쌓은 것은 어쩌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돌담은 사시사철 바뀌는 제주의 풍경을 더욱 아름답게 완성한다. 제주의 유채꽃밭과 푸르른 청보리밭, 새하얗게 꽃을 피운 감자밭이 옥지에서보다 더 찬란한 빛깔을 뽐내는 것은 검고 투박한 돌담과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다. 돌담으로 구획된 형형색색의 밭들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아름다운 한 폭의 조각보처럼 보인다.

빠죽빠죽 모난 돌을 열기설기 쌓아 올린 돌담은 섬 전역을 돌며 굽이쳐 흐른다. 사람의 노동이 가미된 인공물이지만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온 선조들의 지혜가 그 속에 녹아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흑룡만리’ 제주 밭담

제주의 돌담은 화산섬의 척박한 환경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제주의 산과 들은 물론, 바닷속까지 어딜 파도 돌밭이었다. 조금만 흙을 걷어내면 커다란 바위로 뒤덮여 있었다. 수만 년 동안 섬 곳곳에서 분출한 용암이 굳으면서 형성된 빌레(넓적하게 펼쳐진 암반을 이르는 제주 방언)가 섬 전역을 덮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척박한 땅을 삶의 터전으로 일구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돌담이 탄생했다.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땅을 덮고 있던 바위를 조각조각 깨냈고, 그걸 버릴 곳이 없으니 주위에 쌓았다. 이렇게 밭을 일구면서 쌓은

것이 바로 ‘밭담’이다. 밭담은 거센 바람과 마소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해줬다. 수천 년간 제주 전역에 쌓이고 쌓인 밭담의 길이는 총 2만2천108km. 지구 둘레가 대략 4만km이니 지구 반 바퀴를 돌고도 남는 길이다. 그래서 밭담을 ‘흑룡만리’(黑龍萬里)라 부르기도 한다. 검은 현무암의 밭담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구불구불 흘러가는 모습이 흑룡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밭담은 대부분 돌을 한 겹으로 쌓은 외담(홀담)이다. 반듯한 직선으로 쪽 뻗어있지 않고 구불구불하게 휘어진 모양을 한 것은 깊숙이

박혀 떼어내지 못한 빌레를 비켜 가며 쌓았기 때문이다. 빌레에서 떼어낸 크고 작은 돌들을 서로 이가 맞도록 엇갈리게 쌓는 데에는 오랜 경험이 필요하다. 각진 돌을 대부분 다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쌓아 올려 돌과 돌 사이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밀면 무너질 듯 아슬아슬해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거센 태풍에도 밭담이 버틸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이 구멍 속에 있다. 돌과 돌 사이 틈새를 통과하는 바람에 의해 압력차가 생기면서 힘이 밭담 틈새 방향으로 작용해 돌들이 서로를 잡

아당기면서 담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다. 최근에는 제주에서도 시멘트로 구멍을 메운 조경용 돌담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빈틈없이 막은 돌담이 오히려 태풍이나 폭우에 더 쉽게 무너진다고 한다. 김유정 제주문화연구소장은 “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대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바람을 어르고 달래는 것”이라며 “허술해 보이는 구멍 속에 선조의 지혜가 녹아 있다”고 말했다.

1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의 밭담길. 김녕리는 제주도 내에서도 밭담의 완형이 가장 잘 보존된 지역으로 꼽힌다. 2 용암이 굳어 형성된 거대한 빌레와 밭담을 같이 볼 수 있는 김녕리의 밭. 이 빌레에서 캐낸 돌로 담을 쌓았다.

A photograph showing several small, pink, fleshy-leaved succulent plants growing in clusters on dark, porous volcanic rocks. The plants have a rosette-like structure with pointed, overlapping leaves. The rocks are dark grey to black with some reddish-brown mineral deposits or soil visible between the plants. The lighting is soft, highlighting the texture of the plants and the rugged surface of the rocks.

“서로 어깨를 맞대고
비바람을 버텨내는 돌담의 모습은
인내와 노력으로 함께 척박한 땅을 개척해 온
제주사람들의 모습과도 닮았다.”

구좌읍 발담길 따라 자박자박

제주도 안에서도 발담의 원형이 잘 보존된 지역은 북동쪽이다. 구좌읍 김녕리, 하도리, 월정리, 행원리, 한동리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지역에는 곳곳에 발담길이 조성되어 있다. 월정리에는 발담테마공원도 있다. 봄기운이 완연해진 3월 초, 구좌읍 김녕리와 하도리로 발담길 산책을 나섰다. 검은 물결처럼 굽이쳐 흐르는 담은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기를 반복한다. 뺨죽뺨죽 모난 돌들은 어느 하나 같은 모양 없이 제각각이다. 검은 담돌 곳곳에 누렇게 핀 돌꽃에서 모진 바람을 버텨 온

세월의 흔적이 느껴진다. 담 너머 보이는 밭의 모습도 각양각색이다. 푸릇푸릇한 마늘밭과 쪽파밭,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유채꽃밭, 당근 캐는 손길로 분주한 밭, 이미 수확을 마치고 검붉은 흙을 드러낸 밭, 빌레 사이에 조성된 조그만 돌랭이 밭...접점이 이어진 발담 너머로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지기도 한다. 가장 제주다운 풍경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발담을 따라 한참 걷다 보니 밭 한가운데에 딱 하니 무덤이 놓여있다. 이 역시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독특

한 풍경이다. 무덤 역시 돌담으로 둘러 있는데, 발담과 달리 여러 겹으로 쌓은 사각 형태의 겹담이다. 이렇게 무덤 주위에 쌓은 돌담을 '산담'이라고 한다. 어쩌다 밭 안에 무덤이 자리하게 된 걸까? 제주에서도 옛날에는 주로 산야에 무덤을 만들었다고 한다. 주위에 돌담을 쌓은 것은 목장의 마소나 들불에 의해 무덤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후 산야가 점점 밭으로 개간됐고, 산야에 있던 무덤들은 개간된 밭에 그대로 남게 됐다. 그러다 15세기 한라산을 중심으로 국영 목장

이 확대되면서 아예 밭에다 무덤을 조성하는 풍습이 정착했다고 한다. 발담과 발담이 교차하는 지점에는 크고 작은 돌맹이를 넓게 쌓아 놓은 곳도 있다. 이를 잣벙이라고 한다. 경작하는 과정에서 계속 골라낸 돌을 쌓아 둔 일종의 자갈 저장소다. 이렇게 돌맹이를 쌓아뒀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것으로 산담을 쌓았다. 또 잣벙을 길게 쌓아 안쪽 밭으로 이동하는 통로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 1 구좌읍 하도리에 있는 성담인 별방진 너머로 유채꽃밭이 노란 물결을 일렁이고 있다.
- 2 밭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무덤은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사각형의 겹담인 산담을 무덤 주위에 둘렀다.
- 3 발담 너머로 밭에서 골라낸 자갈을 쌓아둔 잣벙이 보인다.
- 4 당근 캐는 손길로 분주한 김녕리의 농촌 풍경

4



1

1 김녕리 바닷가에 쌓은 신당(갯담)의 돌담 틈새로 바다 풍경이 보인다.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돌담의 비밀이 바로 이 틈새에 있다.
2 제주 전통가옥의 화장실 겸 돼지우리에 쌓은 돌담을 통시라고 한다.

척박한 환경을 지탱해 온 버팀목

밭담을 언제부터 쌓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1234년(고려 고종 21년) 제주에 판관으로 부임한 김구가 이웃 간 분쟁을 막기 위해 경계를 표시하는 돌담을 쌓도록 했다는 기록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전해진다. 이는 제주 전역에 밭담이 확산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제주 사람들이 밭에만 돌담을 쌓았던 것은 아니다. 집 둘레에는 축담과 울담을 쌓았고, 올레길(집 입구에서 길까지 연결된 골목길)에는 올레담을 쌓았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은 높게 쌓아 바람을 막았고, 햇볕이 드는 쪽은 낮게 쌓아 벌이 잘 들어오게 했다. 목장에는 '갯성'과 '갯담'을 쌓아 방목한 말과 소들이 다른 지역 목장이나 농경지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통시(돛통, 돛통시)는 제주 전통 가옥에서 화장실 겸 돼지우리로 쓰기 위해 쌓은 돌담이다. 짚을 깔아 돼지 분뇨와 함께 섞어 삭힌 후 농사용 거름으로 사용했는데 이를 돛거름이

라고 한다. '성담'은 백성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백성들이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



2



돌담을 따라 색색의 밭이 펼쳐진 하도리의 마을 풍경



바닷가에서도 돌담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쌓은 원담(갯담)이다. 바닷돌을 이용해 접담 형식으로 낮게 담을 둘러 쌓고 밀물 때 들어온 물



2

고기가 썰물 때 그 안에 갇히도록 했다. 해안가에 둥글게 쌓은 불턱은 해녀들이 옷을 갈아입고 바다로 들어갈 준비를 하던 곳이다. 가운데에 불을 피워 몸을 덥히기도 했다. 환해장성은 바다로 침입해오는 적을 막기 위해 해안선을 따라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쌓은 담이다. 태풍이 불 때 파도를 막는 역할도 했다. 현재 제주도 내 19개 해안마을에 환해장성의 흔적이 남아 있다. 돌담은 제주 사람들에게는 생활 그 자체였다. 밭에서도, 바다에서도, 마을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오랜 세월을 버티며 척박한 섬에서의 삶을 지탱해줬다. 서로 어깨를 맞대고 비바람을 버텨내는 돌담의 모습은 인내와 노력으로 함께 척박한 땅을 개척해 온 제주 사람들의 모습과도 닮은 듯하다.

1 하도리 굴동에 있는 갯담인 멜튼개. 바닷가에 낮은 겹담을 쌓고 밀물에 들어왔던 고기 떼들이 썰물이 되면 그 안에 갇히도록 했다. 멜(멸치)이 많이 몰려드는 개라서 멜튼개라고 이름 지었다.
2 해녀들이 옷을 갈아입고 바다로 들어갈 준비를 하던 불턱



2

흙돌담이 아름다운 달성 인흥마을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흙돌담은 흙과 돌을 섞어 견고성을 높인 형태의 담장이다. 원시적이고 허술해 보이지만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이 담장은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도 건재한 곳이 많다. 대구시 달성군에는 전남 나주 남평을 본관으로 한 남평문씨세거지(南平文氏世居地) 인흥마을이 있다. 직선으로 뻗은 흙돌담이 아름다운 마을이다.

글 · 사진 성연재 기자



1 매화가 핀 인흥마을 전경 2 목화밭 앞의 문익점 동상

여행의 참맛은 우연에 있다. 당초 목적지는 돌담길이 아름다운 경북 군위의 한밤마을이었으나, 막상 도착해 이곳저곳을 다녀보니 꽃도 없고 웬지 모르게 썰렁한 느낌이었다. 여기저기 수소문한 결과 안테나에 걸린 것이 대구시 달성군 화원을 본리리의 남평 문씨세거지인 인흥마을이었다. 익히 소문은 들어 알고 있었지만, 정작 여행을 목적으로 가본 적은 없는 곳이다. 특정 성씨의 집성촌이어서 여행지 리스트에서 비껴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소박한 목화밭, 화려한 매화밭

서둘러 차를 몰고 인흥마을에 도착했다. 조선 후기 건축양식으로 지은 70여 채의 살림집, 고서를 보유한 문고(文庫) 등으로 이뤄진 전통미 가득한 마을이다. 한 집이 여러 채의 건물로 이뤄진 한옥의 특성상 현재 가구수는 9개에 불과하다. 문익점 선생의 18대손인 문경호가 1861년에 처음 터를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을 앞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큰 목화밭이다. 목화밭 앞에는 문익점 동상이 세워져 있다.

문익점 선생은 고려 말 중국 원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목화씨를 국내로 들여와 보급했다. 그전까지 우리 선조들은 엄동설한에도 삼베나 침 등으로 짠 갈포만으로 겨울





2



1 매화꽃 사이의 딱새 한 마리 2 매화밭 옆에 조성된 목화밭

을 나아만 했지만, 선생의 노력 덕분에 겨울에도 따스한 숨웃을 입을 수 있게 됐다. 후손들은 그런 선조의 뜻을 기리기 위해 목화밭을 조성한 것이다.

목화밭 오른쪽에는 하얗고 붉은 매화꽃이 활짝 핀 매화밭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저 남쪽 매화꽃 명소로 알려진 전남 광양이나 경남 하동보다 나무가 훨씬 컸다. 무엇보다 마음에 든 것은 30여 대를 딸 수 있도록 널찍하게 조성된 주차장이었다. 문씨 집성촌이지만 한 문중만의 마을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곳임을 알 수 있었다. 다행히 공휴일이 아니어서인지 여행객이 많지 않아 천천히 마을을 돌아볼 수 있었다. 매화밭 한가운데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름 모를 새들이 붉은 홍매화 속에 그림처럼 앉아 있다. 어디선가 날아온 벌들이 봉봉거리며 꿀을 따기에 여념이 없다. 이렇게 꿀 따는데 열중인 벌들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 꿀에만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이다. 매화밭을 왼편에 두고 난 오솔길로 접어드니 새파란 부추밭이 반갑다. 잘 살펴보니 밭 위로 홍매화 꽃잎이 떨어져 있다. 부추밭을 지나니 마을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곧이어 가지런히 죽 뻗어 족히 60m는 돼 보이는 흙돌담길이 등장했다. 그 길의 끝자락에는 진분홍 매화 한그루가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한복디자이너 강민정 씨가
직선으로 뻗은 인흥마을
흙돌담길을 걷고 있다.

양반마을 상징하는 높은 흙돌담

흙돌담은 돌이나 흙으로만 쌓은 담과 달리, 양쪽의 단점을 극복한 선조들의 지혜가 서린 유산이다. 담은 영역표시의 수단이자, 재산과 신변의 방어 역할을 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문씨세거지의 높은 흙돌담은 후자의 의미가 좀 더 큰 느낌이다. 집 내부는 볼 수 없지만, 집 위로 피어오른 산수유꽃은 신비로움과 함께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인흥마을의 특징은 좁고, 고불고불하지 않고 네 방향으로 길게 죽죽 뻗어있다는 것이다. 대략 50m가량 될까. 서울 종로 등지에서 볼 수 있는 골목길과는 확연히 달랐다.

길을 묻기 위해 마침 지나가던 여성 2명에게 말을 걸었다. 알고 보니 2019년 인흥마을로 이사와 사는 서예가 고서영 씨다. 그는 남편 문씨 문중의 배려로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고 한다. 문씨 문중은 서예가 고씨의 글씨가 마음에 들어 이사를 권했다는 것이다. 그는 인흥마을 가장 남쪽의 수백당(守白堂) 앞쪽 기와집에 살고 있다. 옛날 양반댁에서 시인과 묵객들을 초청해 머무르게 했던 것과 닮아있다. 고씨는 이곳 텃밭에서 작품 활동과 더불어 농사를 짓는 '농부작가'다. 제초제를 치지 않고 유기농 채소를 가꾸기 때문에 하루라도 쉴 틈이 없다.

다음날 고씨 일행의 초대를 받아 광거당(廣居堂)을 방문했다. 광거당은 학생들을 가르치던 학교 역할을 한 건물이다. 광거당을 방문한 것은 고씨와 함께 만났던 한복 디자이너 강민정 씨가 이곳을 배경으로 자신이 디자인한 한복을 피팅해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씨는 지난해 근처로 이사와 디자인 작업을 해오고 있다. 그는 한복 관련 강의를 광거당에서 진행한다. 인흥마을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고씨는 이곳에서 매일 밤 서예 교실을 열고 있다.

그의 안내로 서원이었던 광거당을 비롯해 여러 건물을 둘러봤다. 역시 서예가답게 글씨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쏟아냈다. 수백당은 소나무와 향나무를 비롯해 철마다 피는 화초가 아름다운 정원이 멋스럽다.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것은 수백당 뒤쪽 복도 위에 내걸린 쾌활(快闊)이란 글자다. 말 그대로 글자가 날아갈 듯 쾌활하게 보였다. 알고 보



니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이다. 인흥마을에는 김정희의 글이 모두 6점 있다. 마을에는 이 밖에 민간문고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서를 갖춘 인수문고도 있다. 초저녁을 맞은 인흥마을을 하릴없이 거닐다 보니 한 집의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온다. 양해를 구하고 들어갔더니 한 중년 남성이 장작불을 태고 있다. 불을 지피 난방을 한다고 한다. 두서없이 얘기를 나눴다. 서울에서 한평생 직장생활을 하고 귀향했다고 자신을 소개한다.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물어봤더니 손사래를 치는 그는 대신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보여줬다. 얼핏 한두 장을 봤는데 예사로운 솜씨가 아니다. 아마추어 사진작가라고 한다. 사진 속 길게 죽 뻗은 돌담길 위로 흐드러지게 핀 능소화의 모습은 정말 매력적이었다. 능소화 사진이 그렇게 돋보이는 것은 길게 일직선으로 뻗은 흙돌담길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능소화가 필 때가 가장 아름답다며 6월에 꼭 다시 오라고 말했다.



2

1 길게 뻗은 흙돌담 위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 추사 김정희의 글 '쾌활' 3 서예가 고서영 씨가 인흥마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4 고서영 씨 작업실에 걸린 붓들



3



4



1 마비정마을의 돌담벽 2 마비정마을의 상징 천리마 조형물

마비정마을의 돌담길

인홍마을에서 비슬산 기슭 쪽으로 2km만 올라가면 마비정(馬飛亭)마을을 만날 수 있다. 주차장 입구에 서 있는 흰색 말과 검은색 말 조형이 눈길을 끈다. 조형물은 ‘천리마’인 수말 비무와 암말 백희를 형상화한 것이다. 비무가 천리마란 소문이 널리 퍼져 전쟁에 군마로 뽑힐 처지가 되자 백희가 비무 대신 죽었다는 슬픈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다. 비무가 백희 무덤에 약초와 꽃을 둔 덕분에 이 마을은 역병을 비껴갔다고 한다. 35가구 70여 명이 사는 마비정마을은 인홍마을과 달리 담벼락이 돌담으로 되어 있다. 돌담이 아닌 벽은 1960년대 우리 삶의 모습을 그린 벽화로 장식되면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다. 2018년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한 ‘제1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벽화도 벽화지만 상당수의 집 지붕이 초가로 꾸며졌다. 그래서 기와 일색인 인홍마을이 귀족적이라면 이곳은 서민적인 느낌이 강하게 든다. 산기슭에 집들이 들어선 덕분에 지대가 낮은 곳을 흙으로 채운 뒤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돌로 옹벽을 쌓았고, 이 옹벽이 자연스럽게 돌담이 됐다. 그래서 한쪽 벽은 낮고, 반대쪽 벽은 높다.





1 사문진 나루터의 피아노 조형물 2 온돌 난방이 가능한 황토방 3 대구수목원 앞 빵집 '행운의 시간들'에서 만날 수 있는 미나리빵 4 인흥마을 주변에서 손님들이 미나리와 삼겹살을 함께 구워 먹는 모습 5 황토방 식당의 부추전과 된장비빔밥, 두부

마비정마을에는 한복디자이너 강씨 등 3명이 힘을 합해 마련한 작은 마비정 공방이 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 재료로 염색한 한복 등 다양한 제품이 판매된다. 마비정 공방 맞은편에는 신선한 식자재를 활용한 메뉴를 내놓는 마비정 황토방 식당이 있다. 20년이 넘는 식당이라고 한다. 이 집 메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추전이다. 보통 밀가루가 두툽한 다른 식당의 전과 달리, 이곳의 부추전은 밀가루 반죽 비율이 적은 대신 부추가 듬뿍 들었다. 직접 만든 두부도 고소하다.

마을 올라가는 길에는 수십 곳의 미나리 생산 농가가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한 농가로 들어섰더니 마침 손님 서너 명이 삼겹살과 미나리를 구워 먹고 있다. 구수한 삼겹살 냄새와 상큼한 미나리가 익는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농부의 안내를 받아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갔더니 초록색의 미나리가 더없이 싱싱하다. 해마다 봄이면 미나리와 삼겹살을 맛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천리마의 약초 덕분에 역병을 이긴 마비정 벽화마을의 스토리를 듣고 푸른 미나리를 보니 상큼하기 그지없다. 어쩌면 이 신선한 미나리를 먹고 이번 팬데믹도 잘 이겨 나갈 힘을 길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미나리 한 단을 사 들고 차에 올랐다.



>> Information

인흥마을과 마비정마을을 여행하려면 인흥마을에서 3km 거리의 화원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마비정마을에도 군불을 때 방을 덥히는 황토방이 있어 두 마을을 오가는 데 편리하다. 인흥마을에는 음식점과 숙소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피아노가 최초로 전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낙동강 사문진 나루터, 인흥마을 인근에 있는 대구수목원도 한번 둘러볼 만하다. 또 수목원 앞의 '행운의 시간들' 베이커리는 전국의 '빵지순례' 코스에 들 정도로 인기가 높다.

3

돌담의 재발견 상도문 돌담마을

올봄 흐드러진 벚꽃 터널을 찾아 강원도 속초로 향한다면 설악산
초입의 상도문 돌담마을을 둘러보자. 벚꽃길에서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관광지의 번잡스러움에서 벗어나 고즈넉함을 누릴 수
있는 마을이 있다. 미로처럼 구불구불 이어진 돌담과 돌담을 장식한
아기자기한 조형물들은 그 자체로 힐링이 된다.

글 김희선 · 사진 전수영 기자





설악산을 병풍처럼 두른 상도문 돌담마을

설악산 초입에 있는 상도문 돌담마을은 500년의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마을이다. 설악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앞으로는 대청봉에서 발원한 쌍천이 흐르는,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다. 도문(道門)이란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전해 내려온다. 신라 때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신선의 안내로 설악산으로 향하던 중 이곳에 이르

자 갑자기 숲속에서 맑고 우아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무상무아의 불법을 아뢰는 듯한 소리에 도통의 문이 열렸다고 해서 도문(道門)이라 불렀다고 한다.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에서 내려온 신선이 이곳에서 설악산으로 가는 길을 물은 뒤 설악산 와선대에 누워 놀다가 비선대에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도 있다. 이곳에서 길을 물었다고 해서 도문(道門)

이라고 하던 것이 도문(道門)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수도객들이 도를 닦기 위해 설악산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라고 해서 도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도 있다. 상도문 돌담마을 탐방은 속초 8경 중 하나인 학무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속초도문농요전수관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니 소나무 숲이 우거진 야트

막한 언덕 위에 조그만 정자 하나가 눈길을 끈다. 정자에 오르니 붉은빛을 띤 금강송들이 구불구불하게 춤추는 듯한 형상이다. 그래서 학무정이라 이름 붙였나 보다. 학무정은 구한말 성리학자인 매곡 오윤환(1872~1946) 선생이 1934년 만든 정자다. 정자가 육각 모양이어서 육모정이라고도 불린다.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에 반대하고 3·1운동에 앞장섰던



학이 춤을 추는 듯한 송림 너머로 매곡 오윤환 선생이 만든 학무정이 보인다.



봄기운에 만개한 버들강아지

오윤환 선생은 이곳에서 선비들과 글을 짓고 시를 읊으며 후학을 양성했다. 지금은 물길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학무정 앞으로 쌍천이 흘러 풍광이 매우 뛰어났다고 한다. 오윤환 선생은 쌍천 주변의 아홉 명소에 이름을 붙이고 구곡가(九曲歌)를 지었는데, 그중 2곡이 학무정이다.

학무정 아래쪽에는 비석 두 개가 놓여 있다. 속초에서 충효를 상징하는 인물인 이재 박지의를 기리기 위해 세운 망곡터비와 충효비다. 그는 현종이 승하하자 이곳에서 삼시세끼 상을 올리면서 삼년상을 지냈다고 한다. 고종 30년에는 이곳에 그의 효행을 기리는 정려각이 세워졌다. 정려각은 이후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대신 후손들이 세운 충효비가 남아 있다.

학무정에서 내려오면 마을 반대편으로 독길이 펼쳐진다. 독에 올라서면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쌍천이 보인다. 뒤를 돌아보니 설악산의 수려한 봉우리들이 손에 잡힐 듯하다. 쌍천은 원래 마을 앞으로 흘렀는데 1954년 큰 수해가 난 뒤 마을 바깥쪽으로 물길을 돌렸다고 한다.

제방을 따라 5분쯤 하류 쪽으로 내려가면 사발을 얹어놓은 것처럼 돌을 둥그렇게 쌓아 올린 탑이 있다. 돌로 된 돛이라는 의미의 행주석범(行舟石帆)이다. 배 모양을 닮은 상도문 돌담마을에 돛을 달아 금은보화 싣고 역동적으로 진·출입한다는 의미를 담아 돌탑을 세웠다고 한다. 돌담은 400년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의 탑은 1954년 수해에 허물어진 것을 2013년 마을주민들이 복원한 것이다.

독길을 산책하며 아름다운 풍광을 즐긴 뒤 본격적으로 마을길 탐방에 나섰다. 3월 초 봄을 시샘하는 폭설이 내린 뒤였다.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쌓였던 눈 속에서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돌담 너머 서 있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아주 작은 꽃봉오리를 막 터뜨린 상태였다. 돌담 위로, 지붕 위로 소복이 쌓인 눈이 녹으며 푹푹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개울물 흐르는 소리처럼 청량하다. 졸졸 눈 녹는 소리에 온갖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어우러져 귓가에 울려 퍼진다. 원화와 의상이 들었다는 맑고 우아한 소리가 바로 이런 소리가 아니었을까.

마을은 구불구불 이어진 돌담을 따라 미로처럼 펼쳐진다. 설악산에서 굴러 내려온 듯한 둥글둥글한 돌로 쌓아 올린 돌담은 담 너머가 훤히 보일 정도로 낮

다. 신기한 것은 집마다 담은 있지만, 대문이 없다는 것. 누구에게나 열린 마을 사람들의 후한 인심을 보여주는 듯하다. 낮은 담 너머에는 고풍스러운 전통 한옥도 있지만, 대부분은 근현대 들어 지어진 개량 한옥들이다. 그래서 더 편안하고 정겹게 느껴진다. 느릿느릿 길을 걷노라면 돌담을 장식한 아기자기한 조형물들이 자꾸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자갈에 정성껏 그려 넣은 참새와 부엉이가 돌담 위에서 지저귀고, 포동포동하게 살찐 고양이가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다. 담장 위에 걸터앉아 책 읽는 소년은 녹슨 고철과 폐품을 이어 만들었다. 돌담 위를 느릿느릿 기어가는 무당벌레 가족과 달팽이 가족, 돌담 한 귀퉁이에서 힘겹게 돌을 밀고 있는 이름 모를 벌레... 곳곳에 숨어있는 조형물들을 보물찾기하듯



마을길을 걷다 보면
돌담을 장식한 아기자기한
조형물들에 발걸음을 자꾸
멈추게 된다.



1, 2, 3, 4 마을의 고즈넉함을 담은 조형물들이 산책에 소소한 재미를 더한다.

발견하며 걷는 것이 산책에 소소한 재미를 더한다. 마을의 고즈넉함을 담은 이 조형물들은 지난 3년간 예술가들이 이곳에 머물며 만들고 설치한 것이다. 2018년부터 추진해 온 문화마을사업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주민들은 오랜 세월 묵묵히 마을을 지켜온 돌담에 주목하고, 마을을 상징하는 예술품들로 꾸민 돌담 갤러리를 조성했다. 마을 이름도 '상도문1리 전통한옥마을'에서 '상도문 돌담마을'로 바꿨다. '돌담의 재발견'인 셈이다.

마을에는 현재 200여 가구가 살고 있다. 시골 마을치고는 꽤 규모가 크다. 약 30가구가 민박을 운영하고 있어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하룻밤 묵어가기에도 좋다. 주민들은 마을 방문객을 위해 천연염색 체험과 손글씨를 돌에 새기는 '스톤아트'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❶

